

#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

김헌수 교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구절은 대부분의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맨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그 의미를 찬찬히 새기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순서가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표현처럼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오히려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고전 15:50). 따라서 ‘육신’(flesh)이 부활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몸(body)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조의 모든 표현이 성경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야 한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위일체, 거룩한 ‘보편적’ 교회 등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신조들이 성경에 없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육신의 부활’도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한 고대 교회의 배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2주일 57문에서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부활에 대해서 묻는데, 대답은 신자의 죽음에 대한 것에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신자가 무덤에 묻힌 이후부터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의 기간을 흔히들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57문은 이 시기에 대한 내용부터 가르친다. 그리고는 이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친다. 57문의 순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 신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짐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큰 주제인데, 특히 동양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자기 육신을 떠나서 무덤이나 그가 살던 집에서 배회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러한 혼령들을 달래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무덤은 일종의 작은 성전으로서, 현세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잇는 곳이라 여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때로는 위패가 있는 장소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소홀히 하면 조상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재앙을 입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7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허공에서 배회하거나 혹은 무의식의 수면 상태에 빠진다고 하지 않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42문에서는 신자의 죽음이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요리문답에서는 죽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분

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연합’은 죽음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 11:26).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롬 8:35-39). 그리스도와 의 교제는 죽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사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고백하였다(빌 1:21). 즉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을 그러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갈 2:20).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자는 죽음으로 무엇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 훨씬 더 충만한 상태로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혹은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하고 고백한다(빌 1:21).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이 있음을 안다(고후 5:1).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고후 5:8)이다. 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말한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

신자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장차 임할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눅 23:42-43). 하나님 앞에 있는 의인들의 영은 온전케 되어 있다(히 12:23). 죽을 때에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죽지만 그 즉시 영광 가운데서 다시 그 눈을 뜰 것이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과 달리 불신자의 죽음은 비참하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큰 고통을 받는다. 부자와 거



두 강도 사이에 달린 그리스도(렘브란트 작, 1641년)

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악인은 불로 말미암은 큰 고통 가운데서 지낸다. 그런데 그러한 음부에서의 고통도 전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몸이 부활하여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신자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신자는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데서 해방되었다(히 2:1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성경에서 중간 상태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기에 충분한 만큼은 가르친다.

### ‘육신’의 부활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이나 고대 사회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靈知主義)나 마르시온주의는 철저한 영육(靈肉) 이원론에 기초하여서 육

신의 부활을 부인하였다.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보았던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였다. 영지주의와 마르시온 이단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육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교회는 합리적인 논증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다만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곧장 육신의 부활을 해명하였다.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us, 100-165)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부활을 보여 주려 하지 않았다면 왜 그는 고난당했던 육신으로 부활하셨겠는가?

그는 철학적인 논증에 빠져들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로 영혼과 육신의 이원론의 허구성을 밝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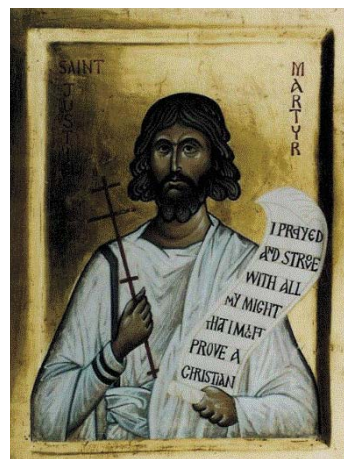
몸(σῶμα, body)의 부활로도 그리스 이원론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되지만, 사도신경은 육신(σὰρξ, flesh)의 부활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육신과 영/성신을 대비시키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성경도 영육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몸 혹은 육신은 사람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여 서 있는 전인(全人)을 지칭한다. 두 말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몸'이라는 표현에 비하여서 '육신'은 사람의 연약하고 허무한 상태를 더욱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며(갈 5:1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롬 8:7) 육신을 좇아 사는 삶은 성신을 좇아 사는 삶과 대립된다(롬 8:9).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성신 안에 있지 않고 성신을 좇지 않는 삶이 곧 '육신'임을 알 수 있다.

신조에서 '몸'이라는 표현 대신에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부활을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도 부활시

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고대 교회의 교인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성신을 좇는 것이 아니면 육신으로 행하는가 하는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였고 매일 풀고 나아가야 할 과제였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았다. 창조주 성신께서는 그러한 육신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육신을 영생에 참여시키고 부활시키신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롬 8:11). 이러한 성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항하던 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님께서 사람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육신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아서 생활하도록 이끈다. 부활이라는 종말론적인 은혜가 현재의 시간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 나아간다.

마르다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로만 생각하였다.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면 부활을 마지막 날에만 해당되는 일로 말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을 그저 미래



순교자 유스티누스 (100-165)

에 경험할 일로만 말하면, 그것은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실제임을 가르쳐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부활이 현재의 생활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부활의 성신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답을 주시고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롬 7:24; 8:11).

이상의 교훈을 놓고 생각할 때에, 고대 교회의 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 ‘육신의 부활’을 고백한 것은 부활을 시간적인 면에서 종말의 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종말이 현재에 침투하여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고 나아감을 확신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몸’과 ‘육신’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언뜻 보면 조그마한 차이로 보이지만, ‘육신의 부활’을 고백한 것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자의 실제 삶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구절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에 서서 나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 현대 사회와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고대 교회에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붙들기 위해서 고백한 내용이다. 그런데 요즘은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하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관한 기사만을 다룬 신문들이 다른 기사를 다루는 신문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간파했는데, 육신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되었다(창 6:2-3). 그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셨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신이 거하시는 것으로 가르친다(고전 6:19). 따라서 우리는 몸에 대하여서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몸에 대하여서 금욕적이지도 않고 반대로 탐미적이지도 않은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몸과 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나갈 때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

###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재난들이 없어졌다.

그러나 거하는 ‘곳’의 이러한 연합은

‘거하는 자들’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차 모든 피조물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고

또한 하나님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물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읽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클라스 스킬더, Heaven what is it? 65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